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들 노동계·광주시 설득 나섰다

첫 공식 활동 '좌초 위기' 광주형일자리 구하기

제21대 총선 광주 당선인들이 첫 공식 활동으로 좌초위기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구하기에 나섰다.

당선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일자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 회생을 위해 광주시와 노동계를 방문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노동계의 입어 붙은 마음을 녹여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제21대 총선 광주 당선자들은 19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을 비롯한 21대 총선 광주 당선자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송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 화합의 전제는 노동 존중이고, 노동이 존중받기 위해선 경영진의 마인드, 시스템 등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안을 허심탄회하게 말해주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지

8명 모두 참석 한국노총 간담회

광주시 "성공 위해 힘 보태달라"

이용섭 시장도 만나 해결책 모색

난 5년 동안 노력하고 합의해왔지만,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약을 먼저 파기했다"면서 "일자리에 목마른 지역 청년들의 소망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 하청 공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담겨있다. 공장 완공 후 매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민에게 지탄 받느니 차라리 지금 멈추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당선자들은 지난 17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양향자 당선자를 제외한 7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당선자들에게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한 것

과 관련,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노동계의 모든 요구를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노사민정의 틀 안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당선자들도 광주형 일자리가 표류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용빈 당선자는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협의의 위대한 광주의 실험인데 흔들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당선인들에게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현안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자치21은 19일 논평에서 "지역 현안 해법에 당선자들이 뜻을 모아 적극 연대를 통해 호남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뒤 故 전한승 군 묘비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광주는 모든 입국자 시설격리

코로나 확진 61일만에 한자릿수

종교시설 등 운영중단 권고 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 달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소강세를 보이면서 정부도 기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광주시는 연이은 해외 감염자 유입에 따라 입국자 전원을 시설 격리 후 검사하기로 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한해선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태세와 관

련해 "5월 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지침 변화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며 "필수적 자가격리,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를 당부했다. 이어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은 코로나19 소강세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부터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1만 661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이하로 떨어

어진 것은 방대본 발표 기준으로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이다.

광주에선 지난 16일 미국과 카타르에서 각각 입국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다.

광주시는 연이은 해외발 감염자 유입에 따라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광주 도착 즉시 시설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확대 발동했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지난 2일 전남 15번 환자 발생 이후 17일째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8명, 나머지 7명은 순천·강진·목포시 의료원, 전남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 준비”

문 대통령 취임후 첫 4·19 기념식 참석…60주년 기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4·19 혁명 기념식을 찾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참석은 4·15 총선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둔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라며 "주권재민"을 훼손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치·사회적 억압을 무너뜨린 혁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헤쳐 가는 힘은 4·19정신에 기반한 자율적 시민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억압 속에서 지켜낸 민주주의, 눈물 속에서 키워온 연대와 협력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대해서도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며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축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미 공조방안, 최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과학기술인들 “방사광가속기 나주에 들어서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 소속 과학기술인 2200여명이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에 힘을 보탰다.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해 최웅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 과학기술인 대표 20여 명은 지난 1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탄탄한 기초과학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선점이다"며 "호남권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전남 나주는 안정적 기반과 넓은 부지, AI 인프라, 풍부한 인적 자원, 한전공대를 비

롯한 공공기관과 에너지 연관기업이 집적해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지난 2017년 기준 R&D사업 비중 3.02%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호남권의 연구개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며 "오는 2022년 개교할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전북대와 전남대, GIST 등 호남권 대

학과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광주·전남지역연합회는 지난 2003년에 설립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2200여명의 과학기술인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남도내 3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라남도사회단체연합회', 재경 광주전남향우회 및 32개 향우기업 등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0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생명영양공동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쌀 공동브랜드

풍광수로

창간68주년
광주일보

신 선 한 바 닷 바 람 風

풍 성 한 햇 별 光

개 곳 하 고 맑 은 물 水

오 염 되 지 않 은 기 림 진 흙 土

에서 재배한 전라남도 농협 대표브랜드 쌀입니다.

“더 건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품질 좋은 쌀로 보답하겠습니다”

NH 농협 NH Jeonhyup 전남농협